

# 복지시설 정부지원금 불교계 가장 적다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이 정부로부터 가톨릭이나 개신교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종단 내부로부터도 가톨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부)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사회복지시설 추계를 위한 한국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 조사(2001~2003년)'에 따르면 각 종교별 정부지원금 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가톨릭은 1천332억원, 개신교는 802억원을 받았지만 불교는 750억원만을 받았다.

종교별 지원금 규모도 불교가 가장 적었다. 2003년도의 경우 전체 590억원 가운데 가톨릭이 47.3%인 279억원, 개신교는 28.7%인 170억원, 불교는 16.5%인 97억원을 차지했다.

반면 시설 이용자 부담금은 2001년 274억원, 2002년 303억원, 2003년 314억원으로 종교계 지원금보다 190~217억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불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총 세입은 상당부분이 정부 지원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교계의 지원은 시설 이용자 부담금보다도 적다는 뜻이다.

또 이번 조사 결과 불교계 사회복지

## 종단지원금도 가톨릭의 3분의 1 수준 시설규모별 지원금액 양극화 심각

2003년 종교별 사회복지시설의 총 세입규모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단위:백만원)

구분	개신교	가톨릭	불교
정부지원금	80230	133234	75087
종교계지원금	16955	27908	9707
이용자부담금	27865	20160	31382
기타	32461	37202	12892
계	157511	218504	129068

\*정부지원금=중앙 및 지방정부지원금, 종교계지원금=종단본부, 교구, 종교계 법인 지원금 포함  
이용자부담금=시설 이용자 부담금

복지시설의 운영형태별, 이용시설별 지원금 규모도 파악돼 불교계 사회복지의 강점과 약점이 한 눈에 드러났다. 2003년도 운영형태별 지원금 규모를 보면 가톨릭과 개신교는 직영시설 지원금이 위탁시설 지원금보다 각각 67억원, 85억원 더 많았지만 불교계는 오히려 직영시설보다 위탁시설에 54억원을 더 지원했다.

이는 개신교의 직영시설이 79.7%, 가톨릭 70.8%인 반면 불교계만은 자체 직영시설(36.3%)보다 정부 위탁시설(63.7%)이 두 배 가량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정부 위탁시설은 3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이 계속 바뀌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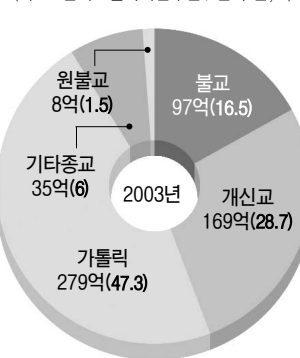
문에 타종교시설은 직영시설 건립에 더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시설분류를 통한 지원금규모(2003년 기준)를 살펴보면 가톨릭과 개신교는 노인복지에 약 40억원, 장애인 복지에는 각각 50억원과 21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불교계는 노인복지에만 간신히 20억원을 지원하며 그 밖의 시설에는 10억원 이하의 지원금만을 분담하고 있다.

이용시설별로 살펴보면 여성복지와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복지 지원금은 아예 한 푼도 없어, 이 분야에 대한 불교계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교계의 지원금분포를 분석

종교별 자체 복지시설 지원금 규모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단위:천,%)



한 결과 상하위시설간 지원금액의 양극화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발견됐다. 2003년 기준 종교계 지원금의 경우 불교계는 500만원 미만만을 지원받는 시설은 29%지만 5000만원 이상도 27%를 차지했다. 상위권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간 지원금액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복지시설 4천48개 중 종교계가 운영하는 1천891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중 불교계 복지시설은 402개(21.2%)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원은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정도를 분석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비 기자

## 연꽃 향기 취해볼까? 연썸밤에 반해볼까?

더러움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處染常淨·처염상정),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씨앗이 썩지 않고 싹을 틔우며(種子不失·종자불실),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히고(花果同時·화과동시), 뿌리부터 줄기까지 텅 비어 있어(眞空妙有·진공묘유) 불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연꽃. 연꽃이 만발하기 시작한 7월, 단순하게 즐김에 그치지 않고 내 마음을 연꽃에 비취보기 위해 도심에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제1회 제부도 연꽃축제가 7월 29일~8월 6일 화성시 연꽃농장에서 열린다. 연꽃일 천연염색, 연썸 비즈공예, 도자기 만들기,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연꽃 썸밤 부침개 등

홍천 거북이마을(041-632-7074)은 올해 처음으로 거북백련지를 공개한다. 홍보를 위해 6~8월 백련종근 무료 분양한다. 마을입구 5000여평 규모로 조성된 백련단지도 구경하고 백련종근도 얻을 수 있다. 연잎차, 연꽃차, 연근 장아찌 등 연근 요리와 사찰 음식 체험 코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백제 무왕과 선화 공주의 전설이 깃들여져있는 충남 부여 공남지에서는 7월 20~24일 서동연꽃축전이 열린다. 공남지에 화려한 자태를 드러낸 홍련 백련 노랑이리엔 가시연 등 연꽃 20여종을 볼 수 있다. 이번 축전에서는 백제 제30대 무왕 행차와 서동-선화공주 포릉정 재회가 볼거리. 창극

### 이달말부터 8월까지 연꽃축제 줄줄이 열려

### 김제 청운사, 태안 청산수목원, 강화 선원사 등

머거리 행사와 연꽃 사진촬영대회 개최된다.제부도 연꽃염색조합(031-356-2943)

충남 태안 청산수목원(041-675-0656)에는 하얀 버드나무가 감싸고 있는 1만5000평 연꽃에 백련 홍련 노랑이리엔 가시연 등 200여종의 연꽃이 자라고 있다. 청산수목원은 연꽃이 만개하는 7월 20일부터 한 달간 '태안연꽃축제'를 연다. 연꽃 구경뿐 아니라 연잎차, 연 아이스크림, 연잎칼국수, 연떡 등 다양한 먹을거리 시식코너도 마련한다.

2002년부터 시작된 '논두렁 연꽃축제(032-934-8484)'는 7월 30일~8월 4일 강화도 선원사 인근에서 펼쳐진다. 선원사가 주최하는 '논두렁 연꽃축제'는 강화도 선원면 지산리를 연꽃마을로 탈바꿈시켰다. 선원사가 1997년 연꽃 재배를 시작한 이래 연근차, 연빙면, 연칼국수, 연떡, 연소면 등 다양한 가공품을 줄줄이 만들어 낸 것이다.

'논두렁 연꽃축제'에서는 자연염색 승마 원조공예만들기 연화도자기 팔만대장경 판각체험 등이 벌어진다.

'서동 선화공주', 화관무, 전통 줄타기 시연, 평양민족예술단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도 마련된다. 무안 백련축제(061-450-5319)도 8월 11~17일 연꽃 그림그리기, 연향차 다도 체험, 연꽃길 탐사, 백련지 생태 공원, 프린지 페스티벌, 연별방랑, 꽃과 빛의 환타지 등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해마다 여름이면 하연연꽃 세상으로 변하는 김제 청운사(063-543-1248)는 6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5회 하소백련축제'를 개최한다. '백련, 부처를 만나자'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3만여평의 백련이 주변에서 청운스님 연꽃 그림전, 행천선생 고려불화전, 운향수 돌 조각전, 네팔 사진전, 초산 솟대 깃발전과 다례시연, 백련음식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아산 인취사(041-542-6441) 백련축제는 7월 22~23일 열린다. 연잎차, 연국수 등 다양한 연음식을 체험할 수 있다. 연등만들기와 목탁 탁본 체험도 마련된다.

이준엽·김지연 기자

### 특정종교 색채 표출 우려 조계종, 방송위에 공문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조계종이 우려를 표명했다.

조계종은 6월 19일 방송위원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방송위원회에서 지난 4월 28일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특정 종교 방송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을 선정 발표했다"며 "이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또 "지상파 방송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금이라도 특정종교의 매체로 전락되면 안 될 것"이라며 "특히 특정종교의 색채가 드러나지 않도록 방송위 차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남동우 기자

### 울릉군 어린이집 위탁운영 민간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민간복지재단(이사장 최정)은 6월 19일 울릉군 교육정책위원회로부터 울릉읍 동동리에 위치한 '꿈나무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건물연면적은 103평으로, 2층 건물이며 정원은 60명이다. 지원심신당으로 선정된 울릉군 미래심신당은 "보육교사를 6명 충원하고 3세 미만의 영아반을 특별 편성하는 등 영유아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타 지역에서도 이용이 용이하도록 어린이집 차량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054791-9191)

이은비 기자

### 불교음악 페스티벌 운영위 제6회 창작 찬불가 공모

2006 불교음악페스티벌 운영위원회가 제6회 창작찬불가 공모 요강을 6월 22일 발표했다.

원서교부는 7월 4일~8월 25일까지, 8월 21~25일에는 작품접수를 받는다. 예심발표는 9월 6일이다. 본선에서 총 8작품을 시상한다. 상패와 상금은 총 660만원, 시상내역은 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2) 야릇다운노랫말상(1) 특별상(1) 장려상(2) 등이다.

본선 경연과 함께 시상식이 열리는 10월 25일에는 '불교전통음악과 오늘의 소리' 음악회를 통해 이전 수상곡을 다른 장르로 편곡한 작품과 창작곡 위촉곡 연주 등도 준비된다.(02)2011-1770

## 도난당한 불화가 버젓이 박물관에?

### 백양사 아미타극락회상도, 불교미술박물관서 전시

### 반환요구에 "선의취득·공소시효 지나" 난색

1994년 도난당한 백양사 극락보전 '아미타극락회상도(1775년 作, 351.5×236cm)'가 2003년부터 한국불교미술박물관(관장 권대성·이하 박물관)에 버젓이 전시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양사와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들은 도난당한 아미타극락회상도를 반환받기 위해 올 4월부터 박물관 측과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렬되고 말았다.

박물관 측이 '선의 취득'을 주장하며 백양사 측의 반환 요청을 완강

히 거부했기 때문이다.

권대성 관장은 "1995년 한 고미술 상으로부터 아미타극락회상도를 구입할 당시, 도난당한 것인지 백양사 소유의 것인지도 모르고 구입했기 때문에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관장은 또 "구입 당시 문화재청 도난문화재과에 도난 문화재인지를 확인했고 조계종 총무원 <도난문화재백서>를 통해 도난 여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 관장은 특히 "<도난문화재백

서>에는 사진이 첨부돼 있지 않았고 실물과도 가로 세로 10cm 이상 차이를 보였으며 결정적으로 종이에 채색한 불화라고 기록돼 있었지만 현재 박물관이 소장한 아미타극락회상도는 비단으로 된 불화"며 "구입 당시 백양사 구입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양사상도박물관 사무국장 법선 스님은 "12년 전 도난 직후 장성경찰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도난신고를 마친 아미타극락회상도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다"며 "선의의 취득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박물관 측의 태도는 억지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박물관에 전시된 아미타극락회상도가 백양사 극락보전

의 아미타극락회상도였다는 증거는 별까.

백양사 측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자료로 남아 있는 사진들과 한국불교박물관에 전시 중인 아미타극락회상도의 내용과 구성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또 정상적인 불화의 형태와 달리 축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도난 물품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백양사 극락보전 내에 봉안돼 있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 기문(1775) 내용과 아미타극락회상도 회기 내용이 90% 이상 일치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증거자료다.

이에 대해 법선 스님은 "아미타극락회상도를 반환하기 위해 행정·법적 절차를 밟아나가겠지만 이에 앞서 도난당한 성보문화재 환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전국 성보박물관과 연계해 다양한 환수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병길 기자

# 윤달에는 해운정사로 삼사순례를 다녀오세요!

삼사순례란 재액이 없는 윤달에 세 곳의 명산 대찰을 참배함으로써 부처님의 인연을 두텁게 하고 모든 액을 소멸하여 복을 짓는 불가(佛家)의 전통의식입니다

### 해운대 해운정사는

- 경허 - 해월 - 운봉 - 향곡선사로 전해 내려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심인법(心印法)을 면면히 이으신 제 79대 법손(法孫) 진제대선사께서 창건하신 대가람!
- 전국에서 운집한 납자들과 재자가들 200여 명이 일년 내내 불철주야 참선정진에 몰두하고 있는 곳!
- 당대의 풍수가들이 한 번 밝기만 해도 발복(發福)한다'고 극찬한 명당의 절터!
- 33과의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관음보궁 3층사리탑!
- 세계 최대의 금동 천수천안관세음보살상을 모신 장엄한 108평 큰법당!
- 일만 옥돌 지장보살님과 만년위패를 모신 대불전!
- 웅장한 해탈문과 아름다운 구름다리!
- 20여 대의 관광버스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시설!

불, 법, 승 삼보가 이렇게 원만히 갖추어져 있는 도량은 없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도량에 한번 참배하는 인연공덕으로 무량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거년에 개최된 해운대 동백섬 APEC 회의장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도 오신 길에 한번 둘러보신다면 더욱 풍성한 순례길이 되실 것입니다.



◆오시는 길 : 해운대역 뒤편  
문의전화 051)746-2256, 4812  
팩스 051)741-8882  
홈페이지 http://www.seon.or.kr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401번지 대한불교조계종 해운대 해운정사 주지 지상 합장